

로맨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Approach on Multiculturalism Shown in Romance Films

오상희, 이주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Sang-Hee Oh(shoh@konkuk.ac.kr), Joo-Eun Lee(myjoolee@konkuk.ac.kr)

요약

세계 각지에서 다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를 가치 지향적인 사조로 견지해야 하는 까닭은 다문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필연적인 현상이기에 분리할 수 없고 선부른 다문화주의의 퇴조는 반인륜적 배타적 민족주의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왜곡되는 기저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의 요소로서 로맨스 영화의 신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로맨스 영화의 스토리텔링 구조는 원질서사에 입각해 긍정적 사랑을 모티브로 취하며 서사 전략적 차원에서 시련으로 치환되는 다문화는 다문화주의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로맨스 영화의 캐릭터는 피상적 이미지와 명시적 의미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이너리티가 위계화 되고 주변부로 밀려난 또 다른 마이너리티는 담론에서 배제된다. 로맨스를 통해 타자에 대한 관용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이항대립적 구조 속에 유폐되고 종국에 상투적인 결말로 인해 와해된다.

■ 중심어 : | 다문화주의 | 로맨스 영화 | 다문화 영화 | 반두비 |

Abstract

The negative awareness of a multiculturalism rises around the world because of various problems that happen with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Nevertheless, the reason we uphold multiculturalism is that multicultural phenomenon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capitalism and the decline of multiculturalism might imply danger of bringing about radical nationalism. This study assumes that a distortion of multiculturalism is the result from a myth of romance film which affects the public perception as an integral component of a discourse. Grounded upon monomith, the narrative structure of romance film of which motive comes from courtly love makes people miscomprehend the value of multiculturalism because of the multicultural factor as substitute for romantic obstacle. As the character of romance movie is likely to be formed focusing on superficial images and denotations, this tendency causes the hierarchy and the representative minority drives out the rest of other minorities. The attempt to arouse people's tolerance and understanding of the other is frustrated both by the structure of binary oppositions and the cliché.

■ keyword : | Multiculturalism | Romance Film | Multicultural Film | Bandhobi |

1. 서론

2015년 1월 프랑스의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Eebdo)¹ 사무실에 AK-74 소총과 로켓발사기로 무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난입하여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편집장인 스테판 샤르보니에 등 만평가 4명을 조준 사살했다. 프랑스 당국은 파리 전역에 최고 수준의 테러 경계 경보를 발령해 추격했고, 결국 경찰에 포위된 범인들은 투항 끝에 사살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무고한 시민들도 목숨을 잃었다. 문화적 충돌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국민국가 개념이 무너지고 국경과 민족의 구분이 와해되어가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톨레랑스 정신을 미덕으로 여겨온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인 프랑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³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임을 내세우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또한 현재 이주민들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국가들에 닥친 다문화주의의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마치 예고나 한 듯 이미 유럽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를 천명해왔기에⁴ 이 참사는 다문화주의를 반대하

는 입장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며 다문화주의의 종언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주의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불거지는 가운데서도 학계에서 다문화주의의 퇴조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반성적 사유 없이 다문화주의를 무작정 적으로 돌린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반인륜적 민족주의의 시대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과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치의 반유대주의 법인 뉘른베르크 법(193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지상주의 법인 아파르트헤이트법(1948) 그리고 미국의 이종족간 결혼 금지법(1967)이 존재했다. 다문화주의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해야할 반성적 사유의 시기가 온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주의 왜곡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화를 소재로 한 로맨스 영화가 다문화주의 가치의 바람직한 구현에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다문화주의의 왜곡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다문화 영화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주의: 한국다문화영화를 중심으로」에서 김중갑·김슬기는 세 편의 영화 <로니를 찾아서>, <반두비>, <세리와 하르>, <완득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가 인종차별갈등에 대한 해소를 누락한 채 문화적 차이만을 강조하는 심각한 과정상의 오류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손은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재현된 영상물을 중심으로」에서 <반두비>와 장편 애니메이션 <페르세폴리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단지 이주민들을 ‘동정’과 ‘배제’ 혹은 ‘동화’의 대상으로 국한되어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영화 속에서 다문화주의의 왜곡을 초래하는 특정한 구조가 양산되는 배후에 이주민의 로맨스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1 샤를리 에브도는 1970년 창간된 프랑스의 풍자 전문 주간지로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것을 풍자해왔다. 주간 발행부수는 4만5000부였지만, 테러 사건 이후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자는 취지로 프랑스 정부와 구글 그리고 각종 언론사의 지원이 이어져 주간 발행부수를 100만부로 늘렸다. 2011년 11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게재해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표적이 되어왔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를 그림이나 동상 등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시다’를 뜻한다. 이슬람교도들에게 기독교에서 ‘아멘’과 같이 쓰이는 말이지만, 지하드,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에서 자살폭탄테러를 할 때 쓰는 말로 인식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장려하는 다문화주의의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국민들은 연일 이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문화주의를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전개 양상이 유럽의 그것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상황은 과거 유럽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종사할 노동자들을 후진국에서 영입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프랑스의 행보는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4 2010년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이상적인 다문화주의 사회를 향한 독일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였고, 2011년 영국 수상 데이빗 캐머런도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해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도 다문화주의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실제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말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 중에서 보다 국지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로맨스 영화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본 연구는 서사 구조적 차원에서 로맨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정 내러티브 양식을 분석한 뒤 이를 영화를 통해 예증한다. 셋째, 다문화 영화에 등장하는 로맨스가 내러티브에 필연적으로 특정 구조를 형성시키고 이러한 구조 속에 다문화주의의 바람직한 가치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이 연구가 밝혀내야 할 목표이다. 즉, 다문화화를 소재로 한 영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로맨스 내러티브의 이면에 은폐된 이데올로기를 밝히고 비판적인 관점을 갖도록 도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II. 다문화 영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필요성

1. 다문화주의의 실패설의 대두

과연 다문화주의는 실패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문화주의에 대해 침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방대한 담론의 각축장에 들어가 시대의 요구 속에 그 유효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선 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쉽지 않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 공동의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너무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나머지 개념 자체가 희석될 지경이다.⁵ 이렇게 다문화주의에 대한 합의된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조 자체의 퇴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⁶

5 다문화주의는 정의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코퍼레이트 다원주의·급진적 다원주의·연방제 다원주의·분리-독립 다원주의, 유형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급진적 다문화주의, 정책 기준으로 온건 다문화주의·강경 다문화주의, 성향 기준으로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비판적 다문화주의, 강조 기준으로는 문화적 다문화주의·정치적 다문화주의로 분류된다[1].

6 다문화사회에 관한 최근 국내 학계의 논의들이 다문화사회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한 방대한 논의나 용어의 혼용으로 학문적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를 언급하는 학술논문들이 이 용어가 갖는 다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개념을 적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

일부 극단적인 성향의 집단은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며 사조의 철회를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선불리 다문화주의의 퇴조를 선언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개념의 등장은 계몽주의의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산업자본주의 비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성의 비판을 거치면서 인종말살(genocide), 민족말살(ethnocide), 민족청소(ethnic cleaning) 등에 나타난 인종차별 현상의 반성으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1]. 반다문화주의를 견지할 경우 다문화 열풍이 거세질수록 그 반작용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동화주의가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과거 인류의 비인도적인 인종차별 시대로 회귀할 위험을 잉태하게 된다.

둘째, 다문화 현상 자체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위적인 정책으로 그 흐름을 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주제한정책이나 동화정책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를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과거 다문화 현상이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기인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경제적인 동기로 이주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현재의 다문화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제도가 야기한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발적인 이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IS(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 문제에 대해 유엔 알카에다 감시팀 조정관을 지냈던 리처드 배럿(Richard Barrett) 전 MI-6 대테러국장은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의 기고에서 “IS를 섬멸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3]. 결국 다문화 현상 자체는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다문화주의의 개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다.

앞서 언급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의 아포리아 속에서도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 개념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로서의 ‘다문화’와 가치판단으로서의 ‘다문화주의’를 구분해야한다는 것이다.⁷ 특히 언론 매

7 다문화주의는 자유나 평등 같은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학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흔히 간주된다. 자유, 평등, 정의 등은 모두 이론의 여지가 많은

체 등을 통해 회자되는 ‘다문화주의’의 실패는 대부분 현상 진단으로서 ‘다문화’의 폐단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현상 진단에 불과한 것을 다문화주의의 퇴조로 확대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러한 이슈야말로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배가시키고 대안 다문화주의를 위한 기폭제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2. 다문화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논점

사실관계로서의 ‘다문화’에 대한 현상적 진단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가치판단으로서 다문화주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주장들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다문화주의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가 포함해야 할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자면 혼종성과 배려의 통합 그리고 이를 통한 상생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치관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대립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고 특정 집단에 속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전통적인 성격의 정체성을 넘어 혼종성 자체를 정체성

으로 취하는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혼종성의 추구가 무력에 의해 대립과 투쟁이 억압되는 국민국가 이전의 상태로 퇴행으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배려의 통합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려의 통합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진정성 있는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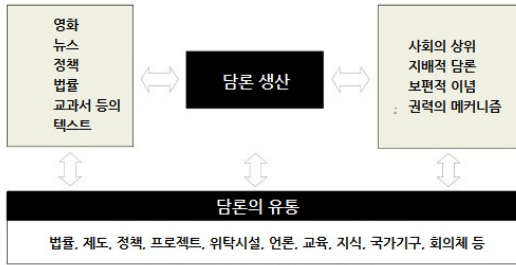
그렇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존 집단으로부터 어떤 인식의 주지를 통해 이러한 배려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분화된 각 집단은 확립적 기준에 의거하여 위계화 되기 마련인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속 집단의 구성원은 언제든 그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기득권도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반면 다수와 소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의 대립적 위계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것을 골조로 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곧 타인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문화 속에서 의식적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통합이란 부유층과 빈곤층, 내국인과 외국인, 이성애자와 소수성애자, 정상인과 장애인 등 현실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의 차이 자체를 무시한 통합이 아닌 자신의 타자화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도출되는 이분법적 위계화 사고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던 맹목적인 발전의 개념을 수정하여 상생의 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다문화사회는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다. 다문화 사회의 기저에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법칙에 입각한 노동력의 국제 이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내국인의 일자리가 값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줄어든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전지구적 경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 경제주체들은 하나의 생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희생은 결국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승화될 것이라는 상생의 발전 개념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로의 인식적 전환에 있어 로맨스 영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담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매커니즘을 통해 살펴보자.

개념들이며, 이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정치이론가들 사이에 일치된 공동의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이론가들은 이들을 포함한 여러 원칙들에 의해 제공되는 취약한 토대 위에서 규범이론을 세우기 위해 여전히 노력한다[4].

⁸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주요국의 지도자들이 언급한 ‘다문화주의의 실패’ 역시 ‘다문화’ 상황이 야기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실 판단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스위스 베른대의 크리스티앙 요프케(Christian Joppke) 교수는 2012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다문화 세계의 도전과 공존을 위한 국제적 접근: 현실, 비전, 행동’을 주제로 주최한 ‘제5차 KF 글로벌 세미나’에서 ‘다문화주의 이후의 이민자 통합’이라는 발표를 통해 “오늘날은 이민자의 사회 통합이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쟁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지도자들이 내뱉은 사망 선언 자체는 각각 특수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던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완전히 실패했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은 사민당 의원이 쓴 반이슬람 성격의 책이 큰 인기를 끄는 데 대해 어떻게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이다[5].

표 1. 다문화담론 형성과 사회·문맥적 맥락[1]



사회의 상위지배담론을 형성하는 권력의 매커니즘은 담론 생산에 강제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다. 이는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y)이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합의’에 의해서, 또는 푸코(Michel Foucault)가 ‘미시정치학’에서 말한 규율에 의한 담론의 지배질서를 통해 형성되는 식이다.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언급한 ‘국가기구’에 의한 담론의 지배 역시 유효하게 작동한다고 보지만 ‘강제적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1].

이러한 자발적 합의와 내면화라는 조건에 매우 적합한 구성 요소가 바로 ‘미디어’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안산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들은 다문화를 직접 체험하기보다 주로 미디어를 통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구현된 다문화주의 가치관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다문화주의가 정착되는데 매우 중요한 구심점이다. ‘영화’는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로서 담론의 효과적인 전파 수단이기도 하며 사회의 에피스테메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영화 장르 중에서 로맨스 영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로맨스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다수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로맨스 영화에서 묘사되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에 감화된 관객은 마음속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말에 그 바람이 성취 또는 좌절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또한 로맨스를 통한 유희주

의적 기획은 현실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도 또는 그것을 감쪽같이 은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객은 로맨스 영화를 통해 별다른 저항 없이 사회적 함의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 이주민 노동자와 이주민 결혼 여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1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사례에서도 글로벌리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된 분석 대상으로 국내 다문화 영화로는 드물게 로맨스 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 <반두비>(2009)를 택해 예증하기로 하며, 논지를 보강하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의 로맨스 영화도 언급하기로 한다.

III. 다문화주의를 다루는 로맨스 영화가

야기하는 문제점

1. 스토리텔링 구조 : 원질신화와 시련의 사랑

로맨스 영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영화의 골격을 이루는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양한 영화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 구조에 대해 캠벨(Joseph Campbell)은 원질신화(monomith)의 17단계를 제시한다[6]. 캠벨은 원질신화의 구조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해의 틀이라고 주장한다.⁹

많은 신화나 인류의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상사성이 지 상이성은 아니다. 일단 이러한 상사성을 이해하면 상이성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정도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리라 믿는다. 저자가 바라기로는, 이러한 저자의 비교 해석이 이 세계의 통합을 결실시키

9 캠벨-보글러-보이탈라로 이어지는 이론에서 제시된 통합체의 구조가 모든 신화의 비밀을 밝혀주는 절대적 방법론은 될 수 없다. 이 구조는 스토리의 통합체(syntagm)적 질서를 보여주지만, 어떤 신화적 요소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다시 말해 계열체(paradigm)적 선택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7]. 하지만 현대에 다양한 로맨스 영화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웅 신화가 스토리텔링 분석에 있어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려는 작품의 경향에 대해, 종교적 혹은 정치적 제국의 이름으로서가 아닌, 인류의 상호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리 초라하지 않은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6].

캠벨의 원질신화 17단계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인 ‘시련과 입문의 성공’이다.¹⁰ 이 부분에서 영웅의 시련을 구애자의 실연으로, 모험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사랑을 뒤흔 놓는 연적으로 치환하면 로맨스 영화의 전형적인 플롯이 도출된다.¹¹ <시련의 길>에서 <궁극적인 흥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영웅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다가도 곧 그 사랑의 대상이 뿌리쳐야 할 유혹임을 깨닫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플롯을 형성하는데, 이는 로맨스 영화에서 주인공의 사랑이 좌절과 성취의 시계추 사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조의 원형이다.

<시련의 길>단계에 대해 캠벨은 “신화와 모험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는 부분도 바로 이 국면이다. 이 국면은 기적적인 시험과 시련을 다룬 세계의 문학을 창출해 왔다”고 밝히며 스토리텔링에서 시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 스투어트 보이틸라(Stuart Voytilla)는 ‘영웅의 여정 12단계’에 ‘로맨스 영화’를 대입하고 “많은 로맨스 영화에서 ‘경쟁자’라는 대단히 효과적인 장애물이 등

장한다”고 언급하며 사랑의 장애물임이 로맨스 영화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명시했다[9]. 이처럼 시련은 원질신화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주된 모티브이자 플롯에 극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의 주요 원리다.

그렇다면 로맨스 영화의 정수이자 주인공의 여정을 지배하는 ‘시련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세 서유럽의 서정시와 기사 소설의 주된 모티브였던 ‘궁정식 사랑’을 분석해 보자. 지젝은 “성적 만남이 종종 사무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행해진 출속행위에 지나지 않는 비판의 시대인 오늘날 왜 고상한 사랑(궁정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로 서두를 열며, 여전히 궁정식 사랑이 현대의 사랑을 해석하는데 유효하며 단지 은폐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10]. 이러한 궁정식 사랑이 로맨스 영화에 나타난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질신화의 구조에 부합하도록 필연적으로 제기된 시련으로서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 현신적인 구애, 명예를 위한 모험으로 대표되는 궁정식 사랑의 모델에 잘 부합한다. 원질신화에 입각하여 사랑을 쟁취하려는 지고지순한 로맨티스트 주인공은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귀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기사의 모습과 유사하다. 둘째, 로맨스 영화에서 다문화는 사랑을 방해하는 규범적 경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¹² 이것은 궁정식 사랑에서 애정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사와 귀부인 그리고 신분의 차이라는 점에서 연적의 개념에 잘 들어맞는다. 셋째, 궁정식 사랑이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기사소설의 핵심 소재로 쓰였듯 ‘시련으로서의 사랑’도 로맨스 영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쓰였다. 두 개념은 독자나 관객의 반응을 의식해 작위적으로 과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기사소설이 독자를 의식해 집필되듯 현대의 로

10 이는 구체적으로 (1) <시련의 길>, (2) <여신 Manga Mater과의 만남>, (3) <유혹자로서의 여성>, 오이디푸스 고뇌의 체득, (4) <아버지와의 화해>, (5) <신격화 Apotheosis>, (6) <궁극적인 흥익>이다. 영웅은 <시련의 길>에서 거둬지는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된다. <여신과의 만남>은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고 도깨비가 퇴치되었을 때 영웅이 치르는 마지막 모험은 승리한 영웅과 세계의 여왕인 여신과의 신비로운 혼례로 표상된다. <유혹자로서의 여성>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모티브로 하는데 영웅의 궁극적인 체험과 행위의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웅의 시련은, 자각의 위기를 상징한다. 시련을 받는 당사자는 자기와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사실과, 자기가 곧 아버지의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삶의 배후에 있는 삶을 찾아나서는 모험가는 그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현실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에테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6].

11 안승범과 최혜실은 한국 멜로영화 역사상 가장 흥행한 작품으로 기록된 <건축한 개론>의 스토리텔링을 신화 구조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바 있다. 크리스퍼 보글러의 ‘영웅의 모험’ 12단계와 스투어트 보이틸라의 ‘심리곡선’ 12단계를 통합한 ‘영웅의 여정’ 장면 분석 세부 모델에 의거해 영화의 두 주인공을 ‘영웅’의 전형으로 대입해 승민과 서연의 ‘영웅의 모험’ 궤적을 도출해 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맨스 영화 역시 스토리텔링의 신화 구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8].

12 보이틸라는 “막판에 이르면 ‘영웅’은 ‘경쟁자’에 맞서 싸워 진정한 사랑을 구해야만 한다. ‘경쟁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웅’을 ‘애정의 여정’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명분과 사랑 중에서 택일하게 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을 하게 만드는 ‘대의명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9]. 이는 로맨스 영화에서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비단 구체적인 인물로서의 연적뿐만이 아니라 의식, 관념, 가치, 규범들을 포괄하는 문화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다문화론을 다루는 로맨스 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장애물은 다문화적 갈등으로 치환이 가능한 것이다.

맨스 영화 역시 관객의 반응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작될 수는 없다. 소설이나 영화나 관객에게 감정의 과잉을 이끌어내야 하는 강박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다.¹³

<반두비>에서 카림과 민서의 로맨스를 가로막는 시련은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카림이 겪게 되는 시련은 외국인노동자로서 고국을 떠나 힘들게 일하지만 악덕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떼이고 설상가상으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 체류자로 저렴한 임금을 받으며 열악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민서의 경우 집에서는 부모로서 자격 미달인 어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 강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운 나머지 유사성행위 업소에 취직해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찾아온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등 뺨뺨 떨어진 환경에서 탈선을 거듭한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둘 사이의 오해와 갈등은 스토리텔링 구조의 시련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영화의 주축이 된다. 처음부터 둘의 만남은 악연으로 점철되는데 민서가 버스에서 카림이 떨어뜨린 지갑을 몰래 가져가려다 걸려서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 후 우연한 계기로 경찰서에서 재회하며 둘의 관계가 시작된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민서에게 부정적인 첫인상을 가졌던 카림은 함께 악덕업자의 집에 찾아가주는 민서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민서는 카림을 집에 초대해 방글라데시 전통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민서가 카림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자 카림은 뛰쳐나가게 되고 또다시 둘의 사이는 멀어진다. 민서는 핸드크림 선물을 들고 카림이 일하는 공장에 찾아가 둘은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백인 영어 강사와 함께 만난 후 돌아오는 길에 서로 크게 다투게 되고 둘은 잠시 헤어지게 된다. 이번엔 카림이 먼저 민서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둘은 다시 화해하게 되고 점차 우정에서 사랑으로 감정이 고조된다. 종합해 보면 민서와 카림의 로맨스는 변증법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감정의 진폭을 넓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시련인 것이다.



그림 1. 카림과 민서의 로맨스에 닥친 시련

이에 대해 지젝은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공식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프로이트는 “성애적 욕구의 정신적 가치는 그 만족이 용이해지자마자 감소된다. 리비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만족에 자연적 저항이 충분치 않은 곳에서 사랑을 즐기기 위하여 인습적인 저항을 만들어낸다”고 밝혔다[10]. 하지만 지젝은 이러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접근불가능성이 단순한 리비도 고양의 촉매가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한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지젝은 “피해야 할 원칙적인 실수 중의 하나는 이 접근불가능성을, 우리는 그 열매가 금지되는 한 그것을 탐낸다는 식의, 단순한 욕망과 금지의 변증법으로 환원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외부적 장애물은, 그 장애물이 없다면 대상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로맨스 영화에서 다문화적 갈등을 주인공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설정하는 것은 관객이 느끼는 사랑의 애절함을 배가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로써 로맨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적 갈등은 관객의 감정 과잉을 유발하기 위한 작위적 장애물로 전략한다. 또한 다문화적 갈등의 제거는 사랑의 성취와 근본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반대로 사랑의 성취라는 환영을 자아내기 위해 조작된 변인에 불과하다. 사랑의 장애물로 치환된 다문화화를 도구로 삼은 주인공의 고난은 “모든 장벽들을 넘나들고 모든 사회적 규칙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기본적 열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13 멜로드라마의 경우를 살펴보면 멜로드라마 역시 관객들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반응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과잉을 이끌어낸다. 훌륭한 할리우드 멜로드라마란 당신을 울게 만들거나 강렬한 감정, 특히 강력한 파토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6].

없다. 우리는 엄밀한 허구적 공식들, 즉 한 남성이 그의 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여인임을 가장하는 ‘~처럼’의 사회적 놀이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10]. 이런 맥락에서 로맨스 영화는 시련의 사랑을 모티브로 삼아 사랑과 다문화주의의 두 가치를 모두 왜곡시키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2. 캐릭터 구성: 마이너리티의 위계적 배제

앞서 언급한 다문화주의 정의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통상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다문화 영화의 개념정의는 비교적 쉽게 내려지고 있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주류의 집단 속에서 국적과 인종이 다른 마이너리티가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회 내에서 하위계층에 분포하는 마이너리티일지라도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들 중 상대적으로 인구비율이 높거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강하거나 혹은 이미지의 차이가 더 뚜렷한 마이너리티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마이너리티 전부를 대표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장르인 영화의 특성상 다문화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마이너리티 캐릭터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전형화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롤랑 바르트가 언급하는 신화는 지배층이 대중에게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학적 체계를 가진 일종의 도구이다. 바르트는 『현대의 신화』에서 신화에는 두 개의 기호학 체계가 있는데 제1체계는 기표·기의·기호라는 3차원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체계는 제1체계에서의 기호가 기표 자체로 되고 제2체계의 기의와 기호가 추가된 또 다른 3차원의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바르트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고자 제2체계의 구성요소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데, 제1체계의 기호에 겹쳐진 기표를 의미(sens), 제2체계에만 속해있는 기표를 형식(forme)으로 구분하고 기의를 개념(concept)으로 마지막으로 기호(signe)를 의미작용(signification)으로 명명했다[11].

또한 바르트는 1961년에 발표한 ‘사진적 메시지(The Photographic Message)’라는 글에서 드로잉, 회화, 영화 등은 스타일이라는 보충적인 메시지로 발전하기 때

문에 명시적인 것(denotation)과 함축적인(conotation) 메시지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상과 기호 사이의 유사성이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도상적인 기호인 사진조차 그 명시성이 신화로 비칠 수가 있는데, 사진은 지각될 뿐만 아니고 읽히기 때문이며 명시적인 의미를 근거로 함축적인 메시지가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 기의가 사회의 특수한 문화를 참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공존하는 파라독스가 생긴다는 것이다 [12].

한편 영화에서 캐릭터는 도상과 스테레오타입에 의해 형성되는데 장르영화에서 도상은 의상이나 소품 또는 특정 공간을 상징하는 미장센과 그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샤츠는 도상을 “시각적 약호화”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특정한 문화 공동체를 규정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물과 사건과 인간 유형들을 특징짓는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샤츠는 스테레오타입을 특정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의 “육체적인 구현체”라 지칭하는데, 각 장르의 핵심인물의 정체성이나 내러티브상에서의 역할은 그 문화공동체에 내포된 가치체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13].

바르트와 샤츠의 논의를 다문화 영화의 캐릭터 분석에 적용시켜 보면 캐릭터를 기호 체계로 분석했을 때 제1체계의 기호로서 단순한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체계의 ‘개념’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작용’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캐릭터의 도상과 스테레오타입 이면에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듯, 충분한 반성적 사고 없이 외연적인 면에서 영화의 캐릭터를 읽어낸다면 그 이면에 은폐된 또 다른 의미작용에 의해 왜곡된 다문화주의 가치관을 은밀히 수용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프랑스 로맨틱코미디 영화 <컬러풀 웨딩즈>(Qu'est-ce qu'on a fait au bon Dieu?, 2014)에서 프랑스 순수혈통의 가톨릭 신자 클로드에게는 네 딸이 있는데 그의 바람과 달리 딸들은 각각 아랍인, 유대인, 중국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마지막 남은 딸마저 아프리카인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조른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다문화 캐릭터들은 사전적인 정의와 피상

적 이미지의 수준에서 구성된다. 피부색과 이목구비로 즉시 구분이 가능한 다양한 인종들을 순수 프랑스인과 대비시킴으로써 캐릭터 구성의 이미지 자체로 사전적 의미의 다문화화를 표상한다. 영화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위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다문화적 상황을 직관적이고 코믹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며 캐릭터의 피부색은 일종의 미장센으로 전략한다.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영화가 중반에 다다르기 전에 프랑스인 막내딸과 아프리카인 사위 커플이 플롯의 중심부를 차지함으로써 영화의 대부분이 이들의 로맨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즉,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아랍인, 유대인, 중국인들은 전개 단계부터 배제되고 피부색이 가장 검은 아프리카인을 중심으로 다문화 마이너리티가 재편된다. 아랍인, 유대인, 중국인의 타인종과 비교해도 확연히 구분될 만큼 짙은 피부색을 가진 아프리카 흑인 사위는 색채 이미지의 강렬함을 무기로 영화의 중심 플롯을 차지하게 되고 다른 소수인종들은 주변부로 소외된다.¹⁴

이러한 마이너리티의 위계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재 국내 다문화주의 문제는 곧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의 이슈와 직결되며 특히 여기서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란 어두운 피부, 궁색한 옷차림과 왜소한 모습, 특유의 어색한 말투를 가진 자들을 지시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 주민을 출신 국가나 민족별로 보면 조선족이 약 70%, 한족이 10%, 베트남이 6% 필리핀이 4%, 인도네시아가 3%, 그리고 몽골인 순이다[15]. 이주민의 80%가 내국인과 얼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동북아 사람들인 것이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영화에 동남아 이주민을 캐릭터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리얼리티의 반영이라기보다 영화의 주제를 관객에게 효과

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설정에 불과하다.¹⁵



그림 2. 카림의 캐릭터 구성

<반두비>(2009)에 나타난 이주민 캐릭터 카림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설정되어 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카림의 모습은 검은 피부색에 이마를 다 가리는 덩수룩한 머리를 하고 험렁한 티셔츠와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으며, 인과 속에서 홀로 반대 방향으로 걷는 모습이 정면으로 비춰진 후 한적한 도로에서 홀로 걷는 모습이 위에서 비춰짐으로써 관객은 단번에 이 영화가 가난한 이주민 노동자들이 힘겹게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 또한 공중전화로 고국에 전화를 하는 모습, 어둡고 칙칙하고 소음으로 가득 찬 공장에서 장갑을 끼고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모습 등은 우리나라에 형성된 다문화의 캐릭터의 전형을 충실히 답습하고 고착시킨다.

이러한 카림의 캐릭터의 스테레오타입은 상대역과 주변 인물들의 대조를 통해 극대화된다. 먼저 카림의 상대역인 민서는 피부가 하얗고 앞머리를 낸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전형적인 여고생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민서의 캐릭터 구성은 카림의 피부색, 신분, 국적의 전형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14 인종차별을 그린 영화 <크래쉬>(2004)의 경우 다문화 영화로 회자되는데, 그 이유는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백인과 흑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중동인, 아시아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인종 캐릭터는 등장 자체에 의미가 있을 뿐 내러티브에 있어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심지어 이 영화에는 한국인 부모도 등장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 이민자들이 수적으로 많기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포함시켰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등장한다[14].”

15 아시아에 존재하는 국가 중 국제 연합의 회원국 지위를 가진 나라만 50여 개 국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 중 어느 정도 주목을 끈 작품의 경우 동남아의 후진국, 그중에서도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이주민에게 페티시즘적으로 집착한다. <반두비>(2009)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가 등장하며, <로니를 찾아서>(2009) 역시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가 등장한다. 또한 <완득이>(2011)의 경우 주인공의 어머니로 식당에서 일하는 필리핀 이주 여성이 등장하며, <마이 리틀 히어로>의 주인공 남자아이 역시 필리핀인, 황구의 주인공도 필리핀인이다.



그림 3.민서의 캐릭터 구성

그밖에 외국인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편취하고 고의로 부도를 내버린 악덕 사장으로 설정된 한국인 청년 남성 캐릭터,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인기 영어 강사로 설정된 백인 남성 캐릭터 등은 어느덧 개연성 있는 다문화 영화 캐릭터를 위한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수민족 이주민이라 하면 과거 6.25전쟁을 계기로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들이 다문화 영화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영화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있을지라도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백인 주한미군의 경우 인류의 인종차별의 역사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해온 인종인데다가 세계 공용어로서 지위를 장악해가고 있는 영어 원어민 화자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이너리티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기에 로맨스 영화에 전형적 요소인 ‘시련으로서의 사랑’을 연출하기 위한 캐릭터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바르트의 신화로 돌아가면 흑인 소년이 프랑스 국기에 경례를 한다는 제1체계의 기호 이면에는 제2체계에 프랑스인들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국가에 충성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맨스 영화에서 등장하는 다문화 캐릭터는 어두운 피부색, 남루한 옷차림, 어눌한 발음 등으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순수한 사랑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하는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애환과 사랑은 고달프지만 낭만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의 왜곡을 야기하는 신화로 작용하는 것이다.¹⁶ 특히 여기서 로맨스는 소수자가 겪는

고통을 미화시키는 일종의 위장막으로 작용함으로써 함축적 메시지로의 비판적 접근을 가로막는다.

로맨스 영화에서 전략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캐릭터는 ‘메이저 마이너리티 major minority’의 지위를 확보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마이너리티=가엾지만 로맨틱한 이방인’의 공식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마이너리티에 대한 정의는 영화를 통해 사회에 전파되고, 이 과정에서 주목을 끌지 못하거나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하지 않는 ‘마이너 마이너리티 minor minority’는 담론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러한 캐릭터 구성의 맹점으로 인해 로맨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주의는 파편화되고 왜곡되며 올바른 다문화주의를 향한 의식 전환을 가로막게 된다.

3. 결말의 클리셰 : 마이너리티의 타자화 고착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형성된 로맨스 영화의 파편적 다문화주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다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문화적 충돌로 인한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는데 일조했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문화를 소재로 한 로맨스 영화의 경우 애초에 사회의 변두리에서 문제의 대상으로조차 여겨지지 않았던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타인종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의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이 인종차별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는 이야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차별받는 소수 인종에 대한 동정심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고양시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떠안아온 미국의 사례는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의 재편을 앞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스탠리 크레이머(Stanley Earl Kramer) 감독의 1967년 작 <초대받지 않은 손님>(Guess Who's Coming To Dinner)에 대해 살펴볼 도록 하자. 이 영화가 제작되고 있을 당시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종족간 결혼 금지법이 1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1967년

16 이는 작가가 정형화하여 재현(representation)한 ‘착한 이주노동자’일 뿐이다. 이런 이주노동자상은 한국 중산층의 시각에서 대상화한 타자일 뿐이다. 그들을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주체로 설정하기보다 한국인에 의한 시혜와 연민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 있는 것이다. 착한 이주노동자와 그에 대한 시혜와 연민의 대상으로서 타자화, 이는

한국 중산층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 ‘재현의 폭력(the violence of representation)’이다[17].

이종족간 결혼 금지법이 미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이 난 해에 비로소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평등의식에 대한 백인의 위선을 폭로하고 인종차별을 둘러싼 양측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플롯이 전개되는 내내 결혼을 앞둔 두 주인공의 부모 사이에 오고가는 서로에 대한 설득과 이해의 노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다소 급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린다.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끝맺음을 낼 수밖에 없는 로맨스 영화의 구조적 운명으로 인해 공중분해 된다. 물론 남북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노골적인 백인 우월주의를 뽐낸하게 드러냈던 그리피스(D.W. Griffith)의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 1915)과 비교해 본다면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흑인의 지위는 크게 상승했지만, 두 영화는 피부색을 기준으로 한 이분법적 스키마에 갇혀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갖는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약 반세기 뒤 케빈 로드니 설리번(Kevin Rodney Sullivan) 감독에 의해 <게스 후>(Guess Who, 2005)로 리메이크 되는데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이 영화의 개봉이 과거 <초대받지 못한 손님>만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표면적인 수준에서나마 흑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이종족 간의 결혼이 영화의 주요 소재로 재차 등장했다는 점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며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로맨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흑백 인종 갈등은 제노포비아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구조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이항대립적 관계를 골조로 한다.

다문화주의를 다루는 로맨스 영화도 이러한 이항대립 구조를 계승한다. 기존 인종차별이 '흑인 vs 백인'의 대립구조였다면 현재 다문화주의는 '마이너리티 vs 주류민족'으로 치환된 것에 불과하다. 로맨스 영화가 주력하는 것은 마이너리티를 대하는 사회의 부조리에 좌절하는 주인공의 사랑을 통해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동정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제노포비아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로맨스 영화가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하더라도 결말의 상투성이 이주민을 타자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 구조를 고착시키게 된다.

<반두비>에서 카림과 민서가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함께 체불된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며 나란히 앉았을 때, 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우려에 찬 눈빛은 카림에게는 경계의 마음이, 민서에게는 걱정의 마음이 담긴 제노포비아적 시선이다.



그림 4. 카림과 민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반두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가진 바람직한 다문화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적 가치는 혼종성을 기반으로 한 배려의 통합이라고 언술한 바 있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의 위계구조 속에서 언제든지 위치가 전복될 있음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반두비>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영어'를 매개로 민서의 지위가 격하되며 두 사람의 지위가 대칭을 이루게 되는 부분이다.

카림: 너희들 얼마나 웃긴 줄 알아? 힘센 백인들에게 아무하고 우리들은 무시하고 정말 비겁해. 더 얘기해 줄까? (...) 동남아에 가서 아무데나 씨 뿌리고, 여자들 올리고 아까 그 백인 뭐라고 한 줄 알아? Sweet. 너희 창녀 같다고 한 거야!
민서: 너 솔직히 여기 왜왔냐?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야? 부자 되겠다고 온 거 아니냐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카림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에서 경멸의 시선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하위 계층에 속해있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윤락업소에서 학원비를 벌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이해하

는 척 하며 선망의 눈으로 백인 영어 강사를 바라보는 민서의 처지 역시 카림의 지위와 다를 바 없다.



그림 5. 카림과 민서의 지위 대칭

영화의 말미에서 카림과 민서는 몰래 차를 훔쳐 도망치고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나눔으로써 두 주인공의 로맨스 여정은 막을 내린다. 이 영화는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향한 의미있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함께 점차 고조되던 두 남녀의 감정과 증폭되는 현실의 문제점이 그리는 상승 곡선이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급작스럽고 작위적인 정점을 찍음으로써 납득하기 힘든 결말에 이르게 되는 맹점을 갖는다. 모든 문제점들을 뒤로하고 야반도주하여 도착한 넓게 펼쳐진 바다 앞에서 끓었던 감정들을 표출시키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현실을 자각하는 식의 결말은 이미 기존의 영화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던 장면 중 하나다.



그림 6. 애정적 갈등 해소 장면

인종차별 갈등 해소에 대한 기존 로맨스 영화의 순기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다문화 문제를 목전에 두고 그것이 이상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문화주의의 핵심가치인 타자성 극복에 구조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영화의 말미에 관객은 관습적으로 형성된 장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결말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르기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결말의 상투성은 로맨스 영화가 제시하는 다문화주의적 가치

들을 전통적인 개념으로 환원시키며 마이너리티의 타자화를 고착시킬 뿐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로맨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주의의 왜곡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각기 다른 음악일 지라도 화성악과 대위법이 여러 곡을 아우르는 작곡의 테두리가 되듯,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세분화 되는 영화일 지라도 일정한 구조가 많은 내러티브를 총괄하는 열개가 된다. 로맨스 영화는 캠벨의 원질신화를 골조로 영웅의 시련 단계를 구현하기 위해 시련의 사랑을 모티브로 로맨스의 여정을 이끌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적 갈등이 사랑의 장애물로 치환되고 감정의 고조 속에서 다문화주의의 왜곡이 은폐된다. 아울러 내러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구성된 사전적 의미와 이미지 중심의 캐릭터는 마이너리티의 위계화를 야기한다.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도모하고 제노포비아의 해소에 일조하려는 시도는 결국 타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투적인 결말로 인해 좌절된다.

인류에게 닥친 난제의 해결에 있어 증기기관의 발명이 그러했듯 기술의 혁신이 시대를 변화시켰던 분야가 있는가 하면, 계몽주의가 그러했듯 의식의 개혁이 시대의 국면을 전환했던 분야가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이 제품의 형태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기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는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 비단 학자들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사조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의식을 공유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비판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정부, 이익집단, 초국적기업과 같은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주체라기보다 일반 대중들의 의식을 미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담론의 지배 질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주류 미디어콘텐츠 장르인 로맨스 영화 속에 내재되어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다문화주의를 인식하는 관객들에게 은밀히 주입시키는 가치관과 스테레오타입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가치 지향적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다. 아울러 로맨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취지는 한계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맨스 영화 자체의 고유한 영역을 존속시키는 가운데 바람직한 차원으로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스톡데일 패러독스적(Stockdale paradox) 기획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문제를 수학의 방정식에 비유하자면 불능 방정식(impossible equation)이 아닌 부정 방정식(indeterminate equation)이라 할 수 있다. 즉,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닌 무수히 많은 해법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본 연구의 로맨스 영화에 대한 구조적 고찰이 다문화주의 콘텐츠의 기획과 수용 양자 모두에 대한 다문화주의의 주장을 위한 탈, 재구성, 횡단을 위한 사유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박천웅, *혼종적 담론비판분석으로 본 한국의 다문화담론 비판*,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 한건수,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제1권, 제1호, pp.113-143, 2010.
 [3] 한겨레, IS 격되는 불가능...함께 사는 방법 익혀야, 2015. 06. 2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96829.html
 [4] 설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개념과 교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7권, 제1호, pp.81-106, 2014.
 [5] 연합뉴스, 유럽 다문화주의 실패 논란 서울서 재연, 2012. 11. 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63939>
 [6] 캠벨 조지프(Campbell Joseph),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7] 김윤아, 이종승, 문현선, *신화, 영화와 만나다*, 만남, 2011.
 [8] 안승범, 최혜실, “멜로영화 스토리텔링의 신화 구조 분석에 관한 시론”, *인문콘텐츠*, 제27호, pp.89-103, 2012.
 [9] 보이틸라 스투어트(Voytilla Stuart), 김경식 역, *영화와 신화*, 을유문화사, 2005
 [10] 지젝 슬라보예(Zizek Slavoj), 이민우 역, *항락의 전이*, 인간사랑, 2001.
 [11] 바르트 롤랑(Barthes Roland),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12] 강태희, *현대미술의 또다른 지평*, 시공사, 2000.
 [13] 배상준, “한국의 다문화 영화 - 장르적 접근”, *인문콘텐츠*, 제36호, pp.75-104, 2015.
 [14] 이형숙, “할리우드 다문화주의의 한계: 영화 <크래쉬> 연구를 통해”, *미국학논집*, 제43집, 제3호, pp.5-25, 2011.
 [15] 이부미, “다문화 교육의 혼돈과 이해의 과정 : 안산 '원곡동' 현장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15권, 제5호, pp.103-127, 2011.
 [16] 김종갑, 김슬기, “다문화사회와 인종차별주의: 한국다문화영화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7권, 제2호, pp.85-105, 2014.
 [17] 이도흠, “나마스테에 나타난 타자성의 두 양상”, *기호학연구*, 제34집, pp.169-196, 2013.

저 자 소 개

오 상 희(Sang-Hee Oh)

정회원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문학사)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문학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문화연구, 다문화주의, 현대미술

이 주 은(Joo-Eun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문학사)
- 2006년 8월 : 덴버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예술학석사) 및 이화여대대학원 미술사학과(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미술사, 문화이론, 근현대미술